

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비 위축과 관광객 유치의 상쇄 효과

한석호 초빙책임연구원/김보람 연구원



배경 및 목적

-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·군·구를 대상으로 출생률, 고령인구, 유소년인구,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하여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하며, 충남에는 총 9개 지역(공주시, 보령시, 논산시, 금산군, 부여군, 서천군, 청양군, 예산군, 태안군)이 포함
-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손실을 상쇄하는 방안으로 관광객 중심의 방문자 경제(visitor economy) 확대 등 '관광 진흥'이 현실적이며 대표적인 전략으로 대두
- 향후 인구감소로 상실될 지역 소비 규모를 관광객 소비로 대체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현시점의 역량 진단 필요
- 충남도 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관광객 방문 및 소비에 따른 지역 소비 축소 상쇄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

정책제언



관광객 유입 및 소비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및 특화 콘텐츠 확충

- ◎ 충남도 내 인구감소 지역은 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한 지역 소비 소실액 상쇄를 위해 관광 기반시설(교통, 숙박, 편의시설 등) 강화,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및 관광상품 다변화, 관광 명소 개선, 지역 간 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적극적인 전략 마련 필요
- ◎ 특히, 관광객 소비 진작을 위한 전략(지역 음식 등 먹거리, 문화체험 및 액티비티, 특산물 및 기념품 개발 등)에 중점을 둘 필요

관광객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한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구상

- ◎ 지역 소비 대체 효과는 당일 관광객보다 숙박 관광객이 높게 나타남으로,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숙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지원 방안 필요
- ◎ 야간관광 인프라 개선,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, 야간관광 활성화 규제 및 정책지원 등

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방문 관광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계획 추진

- ◎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소비 상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객 재방문율을 높이고 나아가 관계인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 필요
- ◎ 관광객과 지역이 지속적인 연계를 가질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체류형 체험 관광(농어촌관광, 생활관광, 워케이션 등) 지원 확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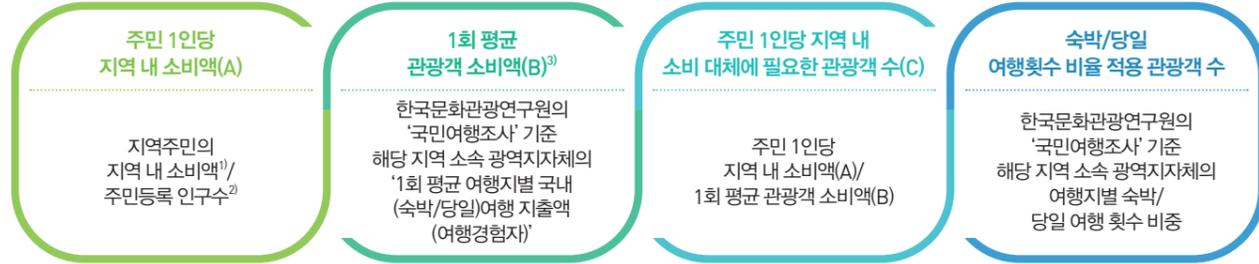
(주의사항)

- ※ 해당 분석은 시기상 코로나19 등 환경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정책 참고용으로만 활용 바라며, 향후 시계열적 추적 및 지속적 데이터 관리 필요
- ※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향후 관광객 수 집계 방식의 체계화 및 고도화,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비데이터 확보 및 분석 등 필요

충남 인구감소 소비 대체를 위한 관광객 수

인구감소 소비 관광 대체 효과란?

◎ 관광 등 방문경제 활성화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 감소에 따라 소실되는 지역 내 소비액을 관광객 지출로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



1) 지역주민의 총소비 지출액 X 지역 내 소비 비율
 - 지역주민의 총소비 지출액 = 전국 소비 지출액(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민계정국민소득통계)인간최종소비지출) X 전국 신용카드(신한+BC) 지출액 대비 지역주민의 카드 소비액 비율
 - 지역 내 소비 비율 = 전국 신용카드(신한+BC) 소비액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신용카드 소유자가 소비한 총 금액의 비율 (※ 본 분석에서의 지역 내 소비 비율은 가용 데이터 확보의 한계로 전체 '21년을 기준으로 함)
 2) 일반적으로 통계청(http://kosis.kr)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, 본 분석에서는 편의상 '충남통계연보' 자료 활용
 ※ 본 분석에 사용된 2개 카드사(BC, 신한)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국 소비 지출액의 약 15.4%, 국내 25개 신용카드 매출액의 약 16.4%의 비중(21년 기준)으로서 지역주민의 카드 소비액 및 비율은 추정된 값임 (현금, 지역화폐 등 소비 형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 감인)
 3) 충청남도 방문 관광객의 1회 평균 소비액(원)
 - (2020년) 숙박: 128,000, 당일: 65,000
 - (2021년) 숙박: 137,000, 당일: 62,000

충청남도 인구증감 현황 및 주민 1인당 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

- ◎ '20~'22년 사이 충남의 전체 인구¹⁾는 평균 287.5명 증가하였으나, 인구감소지역 9개 시·군은 평균 843명 감소
- ◎ '20~'21년 주민 1인당 연간 지역 내 소비액은 충남 평균 5,282,874원이며, 인구감소지역 9개 시·군 평균 4,502,805원으로 인구감소지역 소비액이 낮게 도출
- ◎ '21~'22년 주민 1인 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는 충남도 평균 66.3명(숙박 15.7명, 당일 50.6명), 인구감소지역 평균 56.6명(숙박 13.4명, 당일 43.2명)
 - '21~'22년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1인 소비 대체를 위한 관광객 수는 보령시(72.1명, 80.7명*), 논산시(71.6명, 80.6명), 태안군(62.2명, 69.7명) 순* ('21년도, '22년도)
- ◎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는 전국 및 충남도 모두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(한국관광 데이터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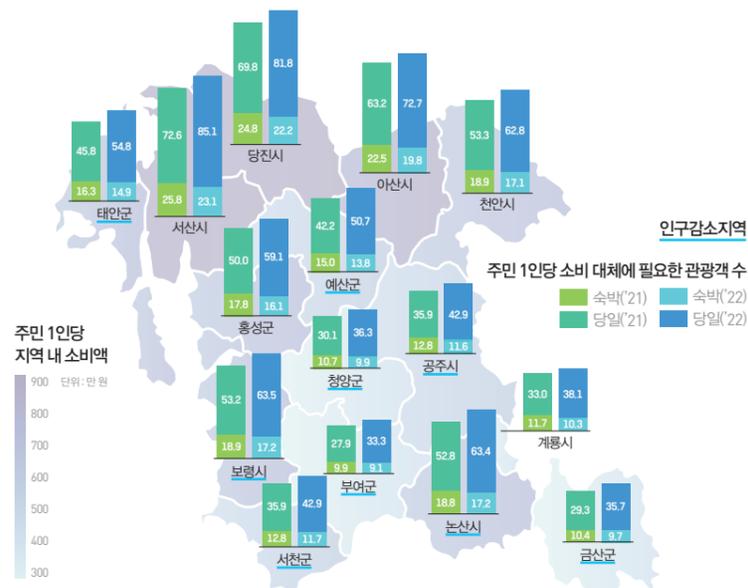
주민 1인 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



인구감소지역 9개 시·군
 (공주, 보령, 논산, 금산, 부여, 서천, 청양, 예산, 태안)



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액 및 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(명)²⁾



1) 충남통계연보(2021, 2022)
 2) 숙박/당일 여행횟수 비율을 적용한 관광객 수로 충청남도 방문 관광객 비중은 숙박 41.2%, 당일 58.8%('20년 기준), 숙박 37.5%, 당일 62.5%('21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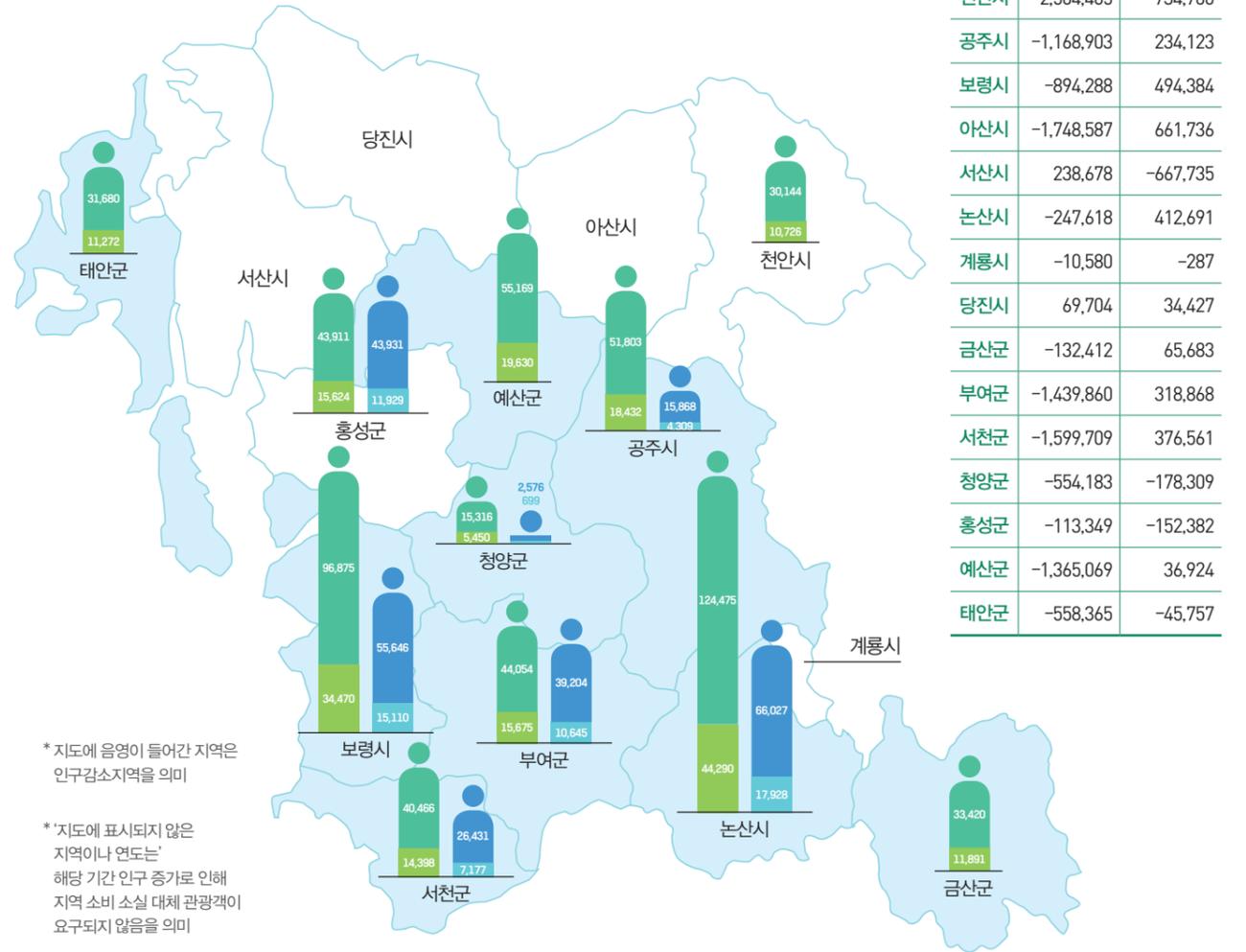
시군별 관광객 수 증감량과 주민 소비 대체 필요 관광객 수

- ◎ '20~'22년 사이 관광객 유입 및 소비로 주민 감소에 따른 지역 소비 소실액 상쇄 효과 연도별 차이 확인
 - '20~'21년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구감소지역 모두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여 실제 인구감소에 따른 관광 소비 대체 효과 미발생
 - '21~'22년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관광객이 증가하여 주민 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를 충족(충남도 평균 732.5%, 인구감소지역 평균 655.6% 수준)
- ◎ 21~'22년 사이 인구감소지역 중 공주시, 논산시, 보령시, 부여군, 서천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주민 소비 대체 필요 관광객 수를 초과 달성
 ※ 단, 공주시, 논산시, 보령시, 부여군은 집계 관광지 확대에 따른 관광객 수 증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결과 해석에 주의 필요
 ※ 금산군, 예산군, 태안군은 '21~'22년 사이 인구 증가로 지역 소비 소실 대체 관광객이 요구되지 않음

- ◎ 다만, 청양군과 태안군은 관광객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향후 관광 소비 대체 효과에 대한 전략적 검토 요구
- ◎ 기타 지역 중 계룡시, 홍성군은 지속해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며, 특히, 홍성군은 인구 및 관광객의 중복 감소에 따른 지역 소비 대체 관광객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정책 대응 필요

충남 관광객 수 증감량¹⁾ 대비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내 소비 대체 필요 관광객 수²⁾ 비교(명)

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비 대체 필요 관광객 수
 ■ 숙박('21) ■ 숙박('22)
 ■ 당일('21) ■ 당일('22)



* 지도에 음영이 들어간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을 의미

*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이나 연도는 해당 기간 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 소비 소실 대체 관광객이 요구되지 않음을 의미

1) 관광지 개소 및 관광객 수는 '충남통계연보' 자료 활용, 관광객 증감은 집계 관광지 수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이므로 해석에 주의 요망
 2) 인구감소(명) X 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 대체에 필요한 관광객 수(명) (※ 소수점 반올림하여 명으로 환산)